

종합·해설

“한나라 대선 경선도 돈선거”

(2007년)

홍준표·원희룡 “박근혜위원장 자유롭지 않다”

친박계 “비대위체제 흔들기” 반발... 내전 조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원희룡 의원이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돈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대선후보 경선을 가면 강원도의 경우 대의원이 700~800명밖에 안 되는데, 이명박·박근혜 후보 진영에서 2000명씩 왔다”며 “이 사람들은 대의원도 아니다. 이게 조직선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체육관 전당대회”의 퇴출이 필요하다. 전국에서 (지지자를) 동원할 때 교통비와 식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에서 대의원 개개인과 대의원을 동원하는 당협위원장, 표 확보에 목숨을 건 후보 중 누구에게 비용을 전가하기 쉽겠냐”면서 “지난 대선 후보 경선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또 이날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선거인단이 체육관에 모여서 투표하는 구조에선 누군들 자유롭겠냐”며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경쟁이 치열했고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양측 모두 동원했으며 비용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어느 쪽이 자유롭게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선후보 경선

에서) 진 쪽도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당내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당내 돈선거, 조직선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보다 더 치열하게 경쟁하며 세 과시가 이뤄지는 대선후보 경선에서 “검은돈”이 더욱 광범위하게 살포됐을 가능성을 던지시 암시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친박(親朴) 진영은 비대위 체제를 흔들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한 친박계 의원은 “당시 박근혜 후보는 돈 봉투를 돌릴 여력이 없었다”며 “비대위를 흔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비대위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당헌·당규를 깔같이 지켰으면 한나라당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돈봉투 책임과 관련해 2008년 이후 친이계가 독점해온 역대 당 지도부를 겨냥한 바 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체육관 선거에 친이·친박 난타전

한나라 2007년 대선 경선 어떤일 있었나

한나라당의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은 가장 치열한 경선전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측은 “이러다가 답이 돌로 쪼개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을 정도로 네거티브 난타전 등을 벌였다. 친이계·친박계 등 양 계파 간 양극은 4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한 표 확보를 위한 신경전이 치열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체육관 경선으로 치러지면서 조직·동원 선거가 불가피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당시 경선에 참여한 홍준표 전 대표와 원희룡 의원이 “양측 모두 동원·비용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느냐”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나라당으로서 지난 대선 경선에서의 돈 선거 의구심이 싹트다는 점에서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명박 후보는 현직 대통령, 박근혜 후보는 차기 유력주자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양측 진영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부인했다.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캠프를 총괄했던 김무성 의원

은 “박 후보는 경선에서 조직이 원도 내놓지 않았다”며 “우리는 돈을 아예 안 썼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캠프에 참여한 권택기 의원은 “정치개혁을 한다는 데 누구도 반대 못 할 것”이라며 “하지만 과답을 사실화하고 그 실체를 밝히지 못하면 더 큰 혼란만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놓고 ‘친이계 고사 작전’, ‘친이계 속내내기’ 등의 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의혹 제기가 배제할 수 없다. 화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강원도 광주시장 등 광주시 주요 기관장들이 11일 오후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를 방문,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기원 행사를 가진 뒤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 광주시 한마음 동참

입장권 사주기 등 범시민 운동 추진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막일(5월 12일)을 4개월 여를 앞두고 광주시가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박람회 홍보에 서부터 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관광상품 개발, 숙박·음식·교통 편의까지 모든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강은태 광주시장과 이은방 광주시의회 부의장, 장희구 광주시교육감, 박홍석 광주상공회의소장을 비롯한 광주시의 자치단체장, 관광·음식·숙박협회장 등 50여 명은 11일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를 방문해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기원 행사를 가졌다. 광주시는 이날 박람회 입장권 2012매를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자원봉사 대학생 25 명을 여수 세계박람회 홍보 도우미로 위촉했다. 또 거리홍보를 위해 시청 관용버스 매표소도 개설했다. 광주시는 여수 세계박람회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예상 방문객이 1000만 명에 달하는 등 경제적·문화적 파급효과가 큰 국제행사인 만큼 광주·전남 상생과 국가균형발전, 남해안 관광발전을 위해 성공개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그동안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기원과 관광객 유치에 위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원협의회와 실·과장 중심의 TF팀을 구성해 다양한 지원시책과 관광 소프트웨어 개발전략을 추진해왔다. 특히 광주시는 박람회 홍보 및 지원, 관광상품 개발 운영, 숙박·음식·

교통 편의대책 등을 담은 ‘여수 엑스포 대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엑스포 입장권 소지자가 광주시의 숙박·음식업소를 이용할 경우 10% 할인해주는 ‘광주 그랜드 세일(Grand Sale)’을 실시하고 광주시민과 수도권 관광객들의 여수엑스포 방문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엑스포 행사기간 집중적으로 문화예술공연과 거리축제 등을 개최해 여수-광주 연계관광도 꾀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수엑스포 입장권 30만장 사주기 운동, 유니버시아드 대학생 홍보대사, 시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여수엑스포 홍보 캠페인,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등 ‘엑스포 지원 3대 범시민운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은태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여수 세계박람회는 여수는 물론 광주·전남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주시는 박람회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수 세계박람회 지정 숙박·음식업소 확대지정과 친절·질서·정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입장권 구매 등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시, 시의회, 교육청, 자치구, 기업체, 관광업계 등이 광주시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여수엑스포가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행사가 되도록 지원과 홍보를 아끼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주제의 여수 세계박람회는 오는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106개국 9개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속 시원히 터뜨려나 봐야... /연습뉴스

선관위, 전대 돈봉투 ‘조사권’ 신설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전대 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 대표 경선에 대해 선관위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13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2006년 12월에도 전대 조사권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 의견을 냈지만 국회가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묵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돈봉투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 속에서 선관위의 의견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전대뿐 아니라 대선 후보 경선 등 당내 모든 경선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과 경선 비용을 후보자가 아닌 정당 등에서 보전해 주는 선거공정제 도입 방안도 논의 중이다. /연습뉴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을 검색하세요



제조방법)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 며 일반면상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명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황성산소를 얹어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물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감성적 지음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다. ▶에도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조 주산지를 찾아 해매린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물을 만들었습니다.

▶에 대한 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산삼추출물을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